

이파라파나무나무

이지은 글 · 그림

※ 이 지도안은 사계절출판사 홈페이지(www.sakyejul.net) > 한 학기 한 권 읽기 > 독서 지도안(초등)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제 오해를 풀고 서로 이해하기

권장 차시 4차시

대상 학년 1-2학년, 유치

관련 주제어 자기표현, 놀이, 친구

교육 과정 연계 통합교과 봄

(2바08-01) 상대방을 배려하며 서로 돕고 나누는 생활을 한다.

국어

(2국04-01) 한글 자모의 이름과 소릿값을 알고 정확하게 발음하고 쓴다.

(2국05-03) 여러 가지 말놀이를 통해 말의 재미를 느낀다.

(2국03-02) 자신의 생각을 문장으로 표현한다.

(2국04-04) 글자, 낱말, 문장을 관심 있게 살펴보고 흥미를 가진다.



■ 도서 소개

평화로운 마시멜롱 마을에 어느 날 천둥 같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파라파나무나무!” 소리의 정체는 산만 한 덩치에 시커먼 털송송이. 이쯤 되면 제아무리 느긋한 마시멜롱들도 가만있을 수는 없습니다. “나무나무? 남남? 우릴 잡아먹겠다는 말이야!” 말 한마디가 일으킨 오해, 낯선 침입자를 둘러싼 해프닝을 유머러스하게 그려 냈습니다. 우스운 일면, 은연중에 ‘다름’에 대해 생각할 거리를 전하는 그림책입니다.

■ 학습 목표

- 마시멜롱 마을에서 털송숭이에 대한 오해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오해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야기할 수 있다.
- 오해가 풀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찾을 수 있다.
- 친구들과 다정하게 지내려면 어떤 태도가 필요한지 이야기 나눌 수 있다.
- 자기가 꼭 하고 싶은 말을 상대방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하는 연습을 한다.
- 행복하고 다정한 마시멜롱 마을을 꾸며 볼 수 있다.

■ 수업 준비

우리는 자신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만 골라 듣거나 알아듣게 말하라고 요구하곤 한다. 심지어 털송숭이 같은 낮은 이들의 말은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경계하기도 한다. 이런 태도는 사실과 다른 선입견을 만들어 오해를 키운다.

이 그림책 속 마시멜롱들도 자신들의 오해 때문에 싸움 준비를 하다 마시멜롱 마을의 숲을 태워 버린다. 이 사태를 멈추게 한 것은 한 아이의 '관심'과 '질문'이다. '이해'가 되면서 사건이 해결되고 마시멜롱은 다시 말랑말랑해지면서 새로운 친구를 기꺼이 받아들인다. 마시멜로처럼 부드럽고 달달하고 유쾌하게 그려진 그림책이다. 유치원에서, 학교에서 친구를 만나고 싶다면 어떤 태도가 필요한지 마시멜롱과 털송숭이를 통해 발견할 수 있다.

수업 준비물 다음 카드, 도화지, 원뿔모양 초콜릿, 마시멜로, 이쑤시개, 컬러 클레이나 레고

■ 학습 과정

	주요 활동	차시
책 읽기 전	초성 놀이 하기 -한 글자, 두 글자, 간단한 문장	1차시
책 읽으면서	마시멜롱 마을 놀이 하기 -행복한 마을 소꿉놀이 -'이파라파나무나무'가 무슨 뜻인지 회의하기 -선생님이 털송숭이	1차시
책 읽은 후	털송숭이의 말을 이해할 수 있게 된 방법 찾기 -꼬마 마시멜롱의 말 따라하기 -털송숭이처럼 말하고 맞추기	1차시
	마시멜롱 마을 만들기	1차시

책 읽기 전

1. 초성 놀이 하기

- 자음 카드를 보고 크게 소리 내어 읽어 본다.
- 그 자음으로 시작하는 낱말을 최대한 많이 찾아 적는다.
(예: ㄱ - ‘그그그’ 소리를 낸다 - 곰, 굴, 강, 길, 공, 국)
- 자음 두 개를 보고 크게 소리 내어 말해 본다.
- 두 자음으로 시작하는 낱말을 최대한 많이 찾아 적는다.
(예: ㄷㄹ - ‘드르’ 소리를 낸다 - 다리, 도로, 두릅, 달래, 돌리)
- 학생들의 참여를 살펴보고 초성을 더 늘려서 같은 방법으로 낱말 찾기를 해 본다. 학생들이 문제를 내어 보아도 좋다.
- 익숙해지면 짧은 문장을 초성으로 말하여 맞춰 보자.
(예: ㅅㅅㅅㅅ - ‘브그프’ 소리를 낸다 - 배고파 / ㅅㅅㅅㅅㅅㅅㅅㅅ - ‘그브그브호호’ - 공부 그만해요)

2. 읽을 책 소개하기

- 제목을 함께 읽고 그림을 보면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상상해 본다.

책 읽으면서



1. 마시멜롱 마을 소꿉놀이하기

- 책의 앞부분에 있는 마시멜롱 마을 그림을 함께 보면서 이 마을은 어떤 마을일지 상상하고 이야기를 나눠 본다.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걱정거리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모두가 똑같이 생겼고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것을 좋아하는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들어 보자.
- 가장 즐겁고 행복하게 노는 모습을 모둠별로 10초씩 소꿉놀이하듯이 보여 주기로 한다. 특별한 놀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근래 가장 즐거웠던 놀이 장면을 재현하면 된다.
- 스머프 마을의 시그널 음악 ‘랄랄라 랄라라 랄랄랄랄라’를 몇 번 연습한다. 그리고 다같이 ‘랄랄라 랄라라 랄랄랄랄라’ 하면 한 모듬이 나와서 10초 간 놀이 모습을 보여 주고 다시 노래를 부르며 들어간다. 모든 모듬이 돌아가며 한다.
- “이렇게 마시멜롱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는 마을에 갑자기 누가 나타났대.” 하면서 다음 이야기를 이어간다.
- ‘이파라파나무나무’를 크게 외치고 책을 펼친다.

2. “이파라파나무나무” 회의하기

- 다 함께 털송송이처럼 ‘이파라파나무나무’라고 외쳐 본다. 교사의 신호에 맞춰 처음에는 작게, 점점 크게 소리 내어 본다. 털송송이가 마시멜롱보다 엄청 크니까 마시멜롱들에게는 어떻게 들릴지 생각해 보면서 마지막에는 아주 크게 외친다.

선생님께 책에서처럼 오해가 생길 수 있도록 ‘나무나무’를 좀 더 ‘남남’스럽게 읽어 주면 좋습니다.

- 모둠별로 ‘이파라파나무나무’가 무슨 뜻인지 의논해서 큰 종이에 적어 보자. 무슨 뜻인지 의견이 결정되면 교사가 받아 적어 준다. 학생이 자기 생각을 바로 적어도 된다.

- 모둠별 의견을 읽어 보고 “만약 이런 뜻이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해석에 따라 어떻게 행동할지 이야기를 나눈다.

- 마시멜롱은 어떻게 해석했는지 함께 읽어 보자.

- 마시멜롱과 같은 의견이 있다면 “마시멜롱과 생각이 같네.”라는 반응을 반드시 해 준다.

- 오해를 한 마시멜롱들의 행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면서 함께 읽는다.

3. 선생님이 털송송이

- 첫 번째 공격(빨간 열매 던지기), 두 번째 공격(공공 묶기), 세 번째 공격(불 공격)까지 읽고, 선생님이 벌떡 일어나서 “이파라파나무나무!”라고 외치며 무섭게 해 보자.

- “이렇게 털송송이가 나타나면 어떻게 맞설 거예요?” 묻고 아이들의 공격 방법을 들어 본다.

- 미리 비밀 쪽지를 준 아이가 발표하도록 한다. 아이는 선생님이 준 쪽지 내용을 읽는다.

“저기요! 정말 털송송이가 우리를 남남 먹으려는 걸까요? 털송송이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는데요?”

- “정말 그렇네.” 하며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어본 뒤 책을 계속 읽는다.



책 읽은 후

1. 털송송이와 친구 되기

- '이파라파나무나무'의 뜻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털송송이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는지 찾아보자. 가장 중요한 역할은 꼬마 마시멜롱이라는 것을 대부분 알고 있다. 그럼 꼬마 마시멜롱이 한 말과 행동 중 털송송이를 이해할 수 있었던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찾아본다.

- 각자 찾은 행동이나 말을 다른 사람 앞에서 발표한다.

- 다른 학생들은 발표하는 친구가 찾은 행동이나 말을 같이 따라 말한다. 중복되어도 괜찮다. 여러 번 따라할 필요가 있다.

예) “정말 털송송이가 우리를 낚낚 먹으려는 걸까요?”하고 묻기

“가 봐야겠어.”하고 털송송이를 찾아가기

“소리 지르지 말고 말해. 천천히 또박또박.”이라고 말해 주기

“아 그랬구나.”하고 털송송이 말을 들어 주기

2. 털송송이야, 뭐라고 말했니?

- “털송송이처럼 말해도 알아들을 수 있을까?” 묻는다.

- 우리 반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한 문장으로 종이에 쓴다.

- 한 사람씩 앞에 나와서 연필을 입에 물고 쓴 문장을 읽는다.

- 무슨 말을 하는지 맞춰 본다.

- 잘 맞추면 친구들이 귀 기울여 들으니까 잘 알아 듣는구나 하고 칭찬해 주고, 못 맞추면 또박또박 말해야 하는 필요성을 이야기해 준다.

3. 마시멜롱 마을 만들기

- 마시멜로와 원뿔모양 초콜릿으로 마시멜롱을 여러 개 만든다. 이쑤시개로 초콜릿과 마시멜로를 연결하면 된다. 책과 다른 모양이 나와도 된다.

- 클레이나 레고로 마시멜롱 마을을 함께 만들어 보자.

- 아까 만들어 둔 마시멜롱을 가지고 마을에서 놀이를 한다.

- 각자의 마시멜롱을 반갑게 맞이하고, 하고 싶은 말을 맞추면 초대해 주는 놀이 규칙을 세워 본다.



■ 함께 읽으면 좋은 그림책

초록초록 이순옥 글·그림

푹푹하고 사랑스러운 초록이 가득한 그림책입니다. 초록들의 운동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초록들은 모두 과일이나 채소의 열매랍니다. 다들 동그랗고 초록빛이라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모두 다른 모습이지요. 초록들이 다 함께 시원한 여름비를 맞고, 햇볕도 쬐며 신나게 뒹구는 걸 보며, 무럭무럭 자라는 초록을 느낄 수 있습니다.

#놀이 #협동



간질간질 서현 글·그림

머리가 간지러워 긁었더니 머리카락이 떨어져 내가 되었다! 떨어지는 머리카락 수만큼 내가 많아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엄마를 놀라게 하거나, 내가 나들과 힘을 합치면 누나보다 커질 수도 있지요. 머리를 긁고, 긁고 또 긁으면 내가 점점 더 많아지겠죠? 한 올 머리카락에서부터 시작되는 무한한 상상놀이가 한바탕 펼쳐집니다.

#자기표현 #놀이



감기 걸린 물고기 박정섭 글·그림

배고픈 아귀가 물고기 떼를 잡아먹으려고 소문을 냅니다. “빨간 물고기가 감기에 걸렸다.” 소문에 동요된 물고기 무리는 빨간 물고기들을 내쫓고 아귀는 손쉽게 배를 채웁니다. 점점 줄어드는 물고기 무리를 통해, 근거 없는 소문이 어떻게 무리를 해체하는지 보여 줍니다. 장난기 넘치는 그림과 과감한 연출, 씩씩한 여운이 매력적인 그림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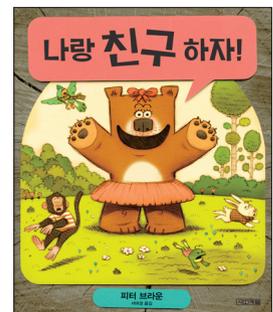
#소통 #관계



나랑 친구 하자! 피터 브라운 글·그림 | 서애경 옮김

루시는 오늘 새 친구를 사귀기로 마음먹습니다. 숲속에는 재미난 친구들이 잔뜩 있으니까요. 하지만 루시의 친구 사귀기는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귀여운 루시는 마음이 잘 맞는 진짜 친구를 만날 수 있을까요? 아이들에게 우정과 친구 사이에 대해 경쾌하게 귀땀해 주는 그림책입니다.

#친구 #자기표현



■ 함께 읽으면 좋은 그림책

두더지의 고민 김상근 글·그림

눈이 펄펄 오는 날, 고민에 빠진 두더지는 눈덩이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고민이 있을 때면 눈덩이를 굴려 보렴.’ 하고 할머니가 해 준 말이 떠올랐기 때문이지요. 두더지의 고민은 바로 친구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눈덩이는 굴릴수록 점점 커져가고, 고민도 점점 커져만 가지요. 걱정 많은 아이들을 다독여 주는,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그림책입니다.

#놀이 #친구



선생님은 몬스터! 피터 브라운 글·그림 | 서애경 옮김

바비는 수업 시간에 종이비행기 날리는 것을 좋아하는 장난꾸러기입니다. 바비에게는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장난칠 때마다 바비를 혼내는 커비 선생님이지요. 바비 눈에는 선생님이 무시무시한 몬스터처럼 보입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바비와 커비 선생님은 우연히 공원에서 마주치는데, 두 사람은 이 어색한 상황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소통 #관계



두근두근 1학년 새 친구 사귀기 송언 글 | 서현 그림

도훈이는 선생님을 즐라서 평상시 좋아하던 윤희와 짝이 됩니다. 그런데 장난꾸러기 친구 우찬이가 도훈이에게 엄포를 놓습니다. “바보야, 여자 친구가 좋다고 남자가 ‘이히히’ 웃으면 밤에 귀신이 나타나.” 도훈이는 윤희가 좋지만 귀신은 무섭습니다. 도훈이는 어떤 해결책을 찾을까요?

#친구 #자기표현



호랑이 씨 숲으로 가다 피터 브라운 글·그림 | 서애경 옮김

호랑이 씨는 틀에 갇힌 도시에서의 삶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뭔가 좀 재미있게, 삐딱하게, 마음대로 살고 싶었지요. 어느 날 호랑이 씨는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네 발로 걷기! 친구들은 손가락질하지만, 호랑이 씨는 개의치 않습니다. 아무데서나 펄쩍펄쩍 뛰어다니고 ‘어흥!’ 포효하더니 급기야 옷까지 전부 벗어버리고는 야생의 숲으로 떠납니다. 과연 호랑이 씨는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자기표현 #성장

